

No.67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12. 26. ~ 1. 3.

특집: 2011년 일본경제 포인트

1. GDP 세계 제3위로 밀려남
2. 새로운 성장모델 확립
3. 2010년 일본경제 하반기 감속
4. 2011년 봄부터 경기 호전
5. 신성장전략 및 재정운영전략 실행
6. 정치적 리더십 요구

[일본정부, 2011년도 경제전망 발표]


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2011년 일본경제 포인트

- 일본 미츠비시UFJ은행이 발표한 “2011년 일본경제전망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10년 GDP가 세계 3위로 밀려나는 등 프레전스가 저하하고 있고, 이 경향이 보다 강해질 가능성에 대해 지적
- 일본경제의 프레전스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조류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 2010년 일본경제를 되돌아보면서 6개 이슈 포인트를 소개

\* 미츠비시UFJ은행은 2006년 도쿄미츠비시은행과 UFJ은행이 합병, 시가총액과 고객만족도에서 1위, 자산규모 160조엔, 종업원 33,827명

### 1

#### GDP 세계 제3위로 밀려남, ‘갈라파고스화’ 진행

- 2010년은 1968년 이후 유지해 왔던 GDP세계 2위에서 3위로 밀려났고, 디지털 기기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약진하는 등 일본의 프레전스 저하가 진행되고 있음
  - －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,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찾지 못해 성장전략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임
  - － 프레전스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, △러시아대통령 북방영토 방문, △센카쿠제도(尖閣諸島) 문제 등, 외교에서도 일본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

## 2

## 새로운 성장모델 확립 : 일본의 파워를 활용

- 소형위성 ‘하야부사’의 귀환(6월), 일본인 노벨화학상 수상(10월) 등 일본의 기술력과 기초연구수준이 강하다는 점을 세계에 알린 사례를 많았음
- － 일본의 프레전스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, 일본은 경쟁력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, 이 파워를 살린 성장모델 확립이 요구됨
- － 새로운 성장모델이 확립되면, 일본경제의 부활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 날 수 있을 것임

## 3

## 2010년 일본경제 : 하반기 감속

- 1/4분기(1-3월) 실질GDP 성장률은 자동차, 액정텔레비전 등 판매 호조와 수출상승세의 영향으로, 전년 동기대비 6.8% 높은 성장을 기록
- － 그러나, 여름 이후 △경제대책효과 一巡, △해외경제의 감속에 따른 수출 감소, △ 에코 카 보조제도 종료(9월) 등으로 일본 경제는 감속 경향이 강해짐
- 일본은행은 경기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,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, 경기 불투명성을 해소시키는 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

## 4

## 2011년 봄 경기 호전: 수출확대 영향으로

- 일본 경기는 2011년 봄부터 미국·중국에 대한 수출·생산이 호전됨에 따라, 경제 악화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
-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2010년 중간까지 쌓아 온 재고조정이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, 내년 봄까지는 중국수출이 확대 될 것이 기대되고 있음
- 미국도 연말 세일이 호전된 데다가, 세계적으로 전기제품의 재고조정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2011년 연초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## 5

## 신성장전략 및 재정운영전략 실행

- 2006년 책정된 「신성장전략」에는 △환경·에너지, △의료·간병·건강관련, △아시아, △관광·지역활성화, △과학·기술·정보통신, △고용, △금융 등 7개 전략분야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음
- 그러나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. 특히 성장전략의 기둥인 ①TPP참가, ②재정재건, ③부가세 인상 등은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 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고 있음
- 신성장전략과 재정운영전략은 만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, 2011년은 반대 세력에 대한 설득과 실천여부가 포인트

## 6

## 정치적 리더십 요구

- 전략의 책정과 실행단계에서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, 자민당 시대에도 존재. 결국 성장전략이 존재하고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큰 요인
- － 민주당은 「신성장전략」에서 “일본의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된 것이 최대 원인이다”라고 분석
-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고, 칭찬해 주어야 할 의사표명임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반대세력의 비판에 구속되지 않고 성장전략과 재정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日과학기술에 관한 의식조사』 경제홍보센터, 12월27일  
\*출처:<http://www.kkc.or.jp/data/release/00000060-1.pdf>
- (2) 『종합과학기술회의에 대한 자문 제11호』 내각부, 12월28일  
\*출처:[http://www8.cao.go.jp/cstp/output/toushin11\\_2.pdf](http://www8.cao.go.jp/cstp/output/toushin11_2.pdf)
- (3) 『2011년(1~3월기) 강제수요 전망』 경제산업성, 12월28일  
\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01227001/20101227001.pdf>
- (4) 『원자력분야의 해외전개 과제』 노무라총합연구소, 12월28일  
\*출처:[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\\_insight/2011/pdf/ki20110102.pdf](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_insight/2011/pdf/ki20110102.pdf)
- (5) 『엔고와 고용』 노동정책연구·연구기구, 12월28일  
\*출처:<http://www.jil.go.jp/kokunai/blt/backnumber/2010/12/002-015.pdf>
- (6) 『2010년 아시아환경 중대뉴스』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, 12월29일  
\*출처:[http://www.iges.or.jp/jp/news/topic/pdf/asia2010\\_j\\_draft.pdf](http://www.iges.or.jp/jp/news/topic/pdf/asia2010_j_draft.pdf)

## [일본정부, 2011년도 경제전망 발표]

12월 22일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, 2011년도 일본경제는 정부지출 감소 및 수출증가 둔화로 1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 또한 내년도에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, 이를 위해 법인세율 5% 인하, 고용촉진세제 창설, 규제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도입할 방침임.

- 일본 내각부는 12월 22일 「2011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」를 발표했는데,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경제는 1.5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- 2011년도에는 정부지출 감소 및 수출증가 둔화로 2010년(3.1%) 대비 감속 전망
  - GDP의 58%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(0.6%) 예상
  - 기업설비 역시 회복세가 지속(4.2%)될 것으로 예상
  - 수출은 해외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제로 6.2% 증가 전망
  - 실업률은 하락(4.7%)이 전망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  - CPI는 GDP(수급)갭의 축소에 따라 0.0% 예상

<표> 주요 경제지표

(단위: 전년대비 %)

	2009	2010	2011
실질GDP성장률	-2.4	3.1	1.5
민간최종소비지출	0.0	1.5	0.6
민간기업설비	-13.6	4.9	4.2
수출	-17.9	15.8	6.2
내수기여도	-2.7	1.9	1.0
외수기여도	0.3	1.2	0.5
실업률	5.2	5.0	4.7
소비자물가지수	-1.7	-0.6	0.0

주: 1) 회계연도(당해년 4월~차년도 3월) 기준, 2)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예상치와 전망치임. 3) 내년도 세계경제 3.2%, 엔환율 82.4엔을 전제.

자료: 内閣府(2010.12.22).